

1. 제시문 (가-2)에서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에 대해 말한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이란 현실과 연관된 낙관적인 생각을 일컫는 말로써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주변의 상황, 피드백에 집중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함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잘못된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비현실적 낙관성이라 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안정감을 만들어내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현실적인 낙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를 보면 둘 다 모두 낙관성을 지녔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낙관성의 유형, 계획의 구체성과 적극성, 그에 따른 결과에는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나)에서는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키호테는 풍차가 자신이 대적해야 하는 거인이라고 착각한다. 거인은 악의 무리이며 거인과 싸우는 것이 정의와의 사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이 정의의 사도처럼 개인을 죽이고 부자가 되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시문 (가-2)에서 경계한 비현실적 낙관성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만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비현실적 낙관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거인이 아닌 풍차라는 산초의 말을 무시한 것은 피드백을 하지 않은 것으로써 현실적 낙관성과는 거리가 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나친 낙관성으로 기도 외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돈키호테는 크게 다치고 만다.

반면, 제시문 (다)의 화자는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실현한다. 화자는 몸이 불구여서 시집조차 가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극복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이 직접 혼사를 찾으려는 적극성까지 보인다. 또한 가족들과 혼사에 대해 직접 의논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에게 모든 걸 맡기고 무작정 돌진했던 (나)와 달리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낙관성으로 인해 과거의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화자의 소원이었던 혼인까지 성사되기에 이르는데 제시문 (나)와는 반대인 긍정적 상황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2. 제시문 (라)의 그래프는 낙관성과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이 성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프를 보면 낙관성의 정도가 높고 자기 능력에 대한 인식의 현실성이 높은 학생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낙관적이고 자기 능력을 잘 파악한 사람이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낙관성의 정도가 높으면서 자기 능력 인식의 현실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낙관성의 정도가 낮을 때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옴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이 무조건 낙관적이기만 하다면 오히려 낙관성이 부정적인 결과를 부추기는 요소로 사용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낙관성 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어느 정도 현실성이 보장되었을 때에만 낙관성이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시문 (가-1)은 행복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을 우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지나친 긍정성, 낙관성, 자신감이 만들어낸 환상이 더 많은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제시문 (라)를 통해 비판될 수 있다. 일단 환사이란 것 자체가 자기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실성 없이 낙관성을 가지면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제시문 (라)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고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때 긍정적이라는 것은 현실성을 갖췄을 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현실성만 갖춘다면 낙관성이 가장 큰 플러스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래프를 통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더 나은 성적이 긍정적 환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제시문 (가-1)의 주장에서 그러한 긍정적 결과를 받게 된 사람들이 정말로 터무니없는 자기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자기 평가에 근거한 낙관적 성향을 지닌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